



보도시점 2023. 5. 11.(목) 배포 시

배포 2023. 5. 11.(목)

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 방역대 내 농가 전화예찰 중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50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4농가로 이번 발생농장은 2차·3차 발생농장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임상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조동호 (044-201-2532)

